

일주문



영암대종사 20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21일 오전 11시 법당에서 영암당 임성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02)511-6070



삼국유사 기획전시관 개관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6월 20일 오후 2시 제7회 삼국유사 문화제의 일환으로 '삼국유사 기획전시관'을 개관한다.(054)383-1161



해인사 현응 스님 초청 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6월 24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강부자씨 초청 특강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6월 18일 조계사 대법전에서 연기자 강부자씨를 초청 '불교와 나의 삶'을 주제로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월 12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동 60년사’ 발간기념 법회

광동중·고교 강당사...월운 스님 등 300여명 참석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6월 12일 광동중고등학교 교내 강당인 운악관에서 '광동 60년사 발간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겸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흥국사 주지 화법 스님,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 봉영사 주지 광동학원 이사 지환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동학원의 건학이념인 '손가락과 손바닥의 관계'를 항상 가슴 깊이 새겨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경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면 스님도 "광동학원 60년을 한 권의 책으로 조망할 수 있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4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찬위원과 집필위원들에게 감사하며,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인사말을 했다.

<광동 60년사>에는 총 567페이지 분량에 1946년 광동초급중학교의 개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변천 및 교육개혁 과정, 동문회 활동, 학교운영조직의 변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돼 있다. 남양주/글·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승·재가 수행·포교 분담 뚜렷해야”

하버드대 비교종교학 박사학위 받은 임미 스님



“한국 근대 불교사를 논할 때 일본 불교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불교는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1910년도는 한국에 100여 개의 일본 포교당을 세울 만큼 자국의 불교 포교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요. 이 과정에서 한국 스님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일본 스님들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불교는 종파 간의 분쟁으로 아시아 불교를 통일화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불교의 한계입니다.”

미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이달 초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2일 임시 귀국한 임미 스님은 박사학위 논문인 '한일 불교관계사(1877-1912)'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연구해온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승가와 재가가 본연의 임무를 돌아야 합니다. 승가는 수행쪽으로 재가는 포교 쪽으로 역할 분담을 뚜렷히 해야 하지요. 하

지만 지금 재가 불자들은 승가를 보필하는 수준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 인사이드 명상센터에 거주하며 하버드대에서 논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임미 스님이 공부에 취미를 붙인 것은 16세 때 제주도 법화사에서 시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한 뒤부터다. 2년 만에 종고교 검정고시를 패스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에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했다.

1994년 불교종단 개혁에 참여도 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 몰랐다. 유학을 결심했다. 한마음선원 대령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의 도움을 받아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석사학위 취득에 이어 5년 만에 박사학위가 됐다.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한국 불교를 알리는 ‘포교사’가 되겠다는 임미 스님은 앞으로 1년간의 포스닥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영통사 성지순례 통일 밑거름 되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6월 12일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3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한 후 일부 언론에서 개성관광으로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 “영통사를 지어놓고 찾아보지도 않는다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스님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남북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 협의를 계속적인 성지순례가 이뤄지도록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대가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열반지이며 탐미와 유람이 모셔진 개성 영통사를 참

배할 수 있는 것을 천태종도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스님은 “분열되어 있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하여 천태종을 개창했던 대가국사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신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스님은 또 “영통사를 참배하는 것은 단순한 성지 순례가 아니다”며 “성지순례가 남북 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반도 불교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김원우 기자

불기협 회장 법보신문 남배현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 제14대 회장에 법보신문 남배현 차장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남배현 차장(사진 왼쪽)을, 부회장으로 월간 불광 양동민 기자를 선출했다.

남배현 차장은 “여러 회원사들의 어려움으로 불교 언론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기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청주 광덕사 네팔왕실무용단 초청 공연



청주 광덕사(주지 일봉)는 6월 10일 청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네팔국립왕실무용단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일봉 스님은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태고종 승정 해륜당 기성 대종사 영결식



태고종 승정 해륜당 기성 대종사가 11일 저녁 신촌 불원사에서 임종했다. 세수 89세, 법랍 74세. 6월 13일 신촌 불원사에서 승정원장(僧正院)으로 열린 영결식은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총회위원장 인공, 사정원장 월운, 부원장 보경, 환우, 서울종서부총무원장 보봉, 인천총무원장 대은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부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박람회’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연합회(운영위원장 정현)는 6월 14-15일 해운대 벵스코(BEXCO) 1층 전시관에서 ‘2007 부산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일반 구인업체와 간병, 산모도우미, 공인중개사 등의 노인취업훈련관 200여 곳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3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구례 화엄사, 통일쌀 경작단 모내기 동참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6월 6일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서 구례군 농민회, 기자자동차 광주지부, 조선대학생회와 통일쌀 경작단 모내기 작업을 펼쳤다. 화엄사 스님 50여명과 기자자동차 노조원 100여명, 구례군 농민회 등은 5000여명의 눈에 모내기를 한 뒤 점심공양을 함께했다.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고성대종사 추대식

본종 제4대 종정 고성 대종사(미국 워싱턴 세계중앙선원(World Zen Center) 원장이자 미국 선종대학(American Zen College) 총장) 추대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수회 동참을 희망합니다.

- ◆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요일)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 하림각 신관 2층 ☎ 02)396-2442
- ◆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02)394~9468/9

- ◆ 자문위원: 경호 계전 광탄 규암 대덕 도만 도배 도운 도원 도응 도찬 도활 만상 무용 무위 법만 법용 법진 법천 분자 완호 자영 정봉 지원 眞性 眞眞 태허 해광 해국 해문 해성 해오 해진 호담 (가나다순)
- ◆ 봉행위원장: 현공 ◆ 부위원장: 범우 도현
- ◆ 지도위원: 경공 고평 공덕 관우 관일 광순 기명 기봉 기원 남용 대경 대성 대원 대월 덕명 덕산 덕우 덕환 도광 도명 도연 도운 도원 도응 도현 동월 동훈 두암 마재 명달 명봉 명호 명룡 묘연 무불 무상 무원 무진 미산 법광 법교 법근 법달 법도 법련 법만 법묘 법민 법상 법승 법연 법영 법장 법조 법현 법혜 법화 법산 보광 보덕 보선 보현 서공 선장 선철 선현 성공 성덕 성문 성밀 성오 성우 성주 세정 세진 송담 수연 수월 수현 수담 영수 오룡 와룡 양연 윤광 원경 원명 원정 원진 원천 월산 월연 월운 월해 월현 인오 일진 자광 자림 자운 자행 자혜 정법 정암 정원 제법 종산 지관 지범 지산 지승 지연 지현 지혜 진아 철민 철수 철중 청공 청암 초혜 해광 해담 해동 해문 해선 해성 해심 해안 해암 해운 해월 해주 행산 행원 현공 현묵 현수 현오 해국 해락 해관 해광 해도 해삼 해성 해승 해심 해인 해철 호암 호일 효정 회정
- ◆ 봉행위원: 강대연 강도현 강석태 강순애 강승대 강정순 강정희 강지오 강평식 강홍철 고광순 고금순 고선희 고성민 고승진 고오연 고은정 고은희 고인덕 고정길 고창식 고충준 공민중 광영근 광운기 광중환 권기순 권기주 권성탑 권영구 권영래 권진석 권필만 김 숙 김 훈 김경호 김고경 김구희 김규덕 김규백 김근식 김금옥 김기성 김길섭 김남학 김대각 김대용 김동구 김동용 김명수 김명진 김문우 김민우 김민현 김방일 김범수 김병락 김병철 김복철 김상문 김상술 김성일 김선태 김성규 김성대 김

성숙 김수열 김숙자 김순배 김순옥 김승익 김애숙 김양순 김양자 김영금 김영숙 김영창 김영훈 김영희 김예섭 김예자 김완식 김용호 김우영 김원진 김응규 김인순 김일순 김지현 김재경 김성준 김정태 김정희 김중국 김준기 김진갑 김진영 김천용 김춘자 김태민 김태홍 김현갑 김현수 김현주 김형선 김형술 김혜경 김혜연 김홍식 김휘진 김희기 김희덕 김희식 김희진 노순애 노연식 노정현 노정현 노효순 대련화 대륜심 대법화 대비심 류미자 마항숙 묘련화 문대곤 민병택 민영옥 박달선 박동열 박보석 박성근 박순남 박순덕 박원규 박준준 박일순 박정수 박정희 박창경 박희자 배병준 배선용 배옥화 법계화 법화심 변경자 변봉현 서경자 서성택 서세숙 서역석 서영애 서윤래 선양희 성광수 소영식 손인산 손정수 송승수 수필심 신덕승 신동기 신범은 신상태 신용식 심진희 안명숙 안석분 안용숙 안영희 안효영 양순자 양혜옥 엄진영 연화행 영정섭 오금주 오수규 오혜자 우미란 우종문 우진혁 원기원 원등만 유영두 유희미 윤 섭 윤경배 윤상호 윤성노 윤희암 이강욱 이경선 이기호 이두리 이만식 이명구 이명숙 이명재 이무자 이문선 이법화 이봉현 이상순 이상준 이상철 이석 이선재 이상숙 이상위 이순수 이순희 이영애 이영범 이일옥 이장희 이재욱 이정원 이정환 이지혜 이창두 이창현 이춘하 이태숙 이해춘 이현정 임덕임 임순덕 임영자 임정심 임정이 임주화 임홍순 자비행 장순옥 장철호 장혜운 전미선 전성자 전지혜 전필금 정상하 정수연 정연자 정태자 조규현 조민석 조방성 조선화 조애자 조은희 조희자 주대욱 주상식 주숙자 주영욱 주원각 진공심 진숙희 진철문 차정자 최경희 최동식 최명자 최부규 최승선 최순녀 최인선 최정자 편영숙 허부자 한상오 한희정 허 경 허순 애 흥봉오 황숙현 황승호 황재수 황현욱 남궁은숙

(가나다순)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추대 봉행위원회 위원장 연공